

전이성 췌장암 환자에 동반된 회장-결장 문합부 정맥류 출혈의 내시경적 경화요법 1예

동국대학교일산병원 소화기내과¹이승은¹, 오동준¹, 이준규¹

서론: 이소성 정맥류 (ectopic varix) 중에서도 대장 정맥류 및 문합부 정맥류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알려져 있으나, 다량의 출혈로 치명적인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대장 정맥류는 대부분 문맥압 고혈압과 관련되어 있지만 드물게 췌장 질환에서도 이차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저자들은 회장-결장 문합부 정맥류 출혈과 전이성 췌장암이 동반된 환자에서, 내시경적 히스토아크릴 경화요법 후 고식적 항암화학치료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증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 69세 남자환자가 다량의 혈변으로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다. 환자는 20년 전 장결핵에 의한 말단회장 폐색으로 복부 수술을 시행 받은 병력이 있었다. 내원 당시 혈압 90/50mmHg, 맥박 110회/분 확인되어 시행한 복부 컴퓨터단층촬영 혈관조영술 (CT angiography)상 상행결장 부위 정맥류 관찰되었고, 우연히 췌장암 및 다발성 간, 림프절 전이가 확인되었다.(Figure 1A). 응급 위내시경상 특이소견 없어 대장내시경 시행하였고 회장-결장 문합부에 다수의 정맥류가 관찰되었다.(Figure 1B). 정맥류는 회장 부위에는 관찰되지 않았고, 문합부의 결장 부위에만 관찰이 되었다. 내시경적 관찰 중 갑자기 다량의 활동성 정맥류 출혈이 관찰되어(Figure 1C) 클립으로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하였고, 지혈 확인 후 검사를 종료하였다. 항암화학치료 전 정맥류 치료를 위해 수술 또는 혈관 색전술도 고려하였으나 환자 상태 및 정맥류의 분포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반복적인 혈변으로 항암화학치료가 연기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내시경적으로 다수의 문합부 정맥류 전체에 히스토아크릴 경화요법을 시행하였고, 이후 정맥류 출혈은 관찰되지 않았다.(Figure 1D). 환자는 FOLFIRINOX 항암화학치료를 10차까지 시행 받았으나, 췌장암 악화로 사망하였다.

결론: 본 증례는 매우 드문 질환인 대장 정맥류가 이전 수술 부위인 회장-결장 문합부에서 발생하였고, 다른 치료방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내시경적 히스토아크릴 경화요법만으로 성공적으로 출혈 지혈술이 이루어졌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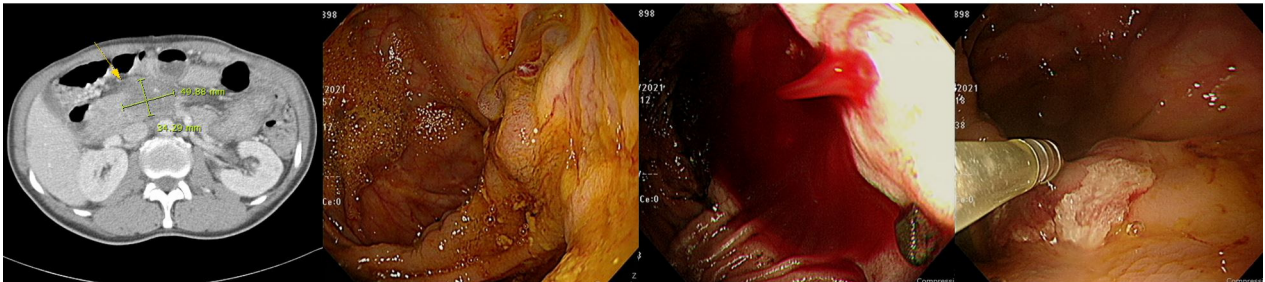


Figure 1A

Figure 1B

Figure 1C

Figure 1D